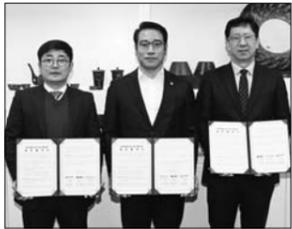


#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발굴 '맞손'

### 남원시,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과 협약 체결 상호 협력 관계 통한 지역 산업 성장동력 확보

남원시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RISC미래수송기기사사업단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발굴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규 사업 발굴과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협정 등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전북대산학협력단·미래수송기기사사업단은 △미래수송기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미래수송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협정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 첫 번째 행보로 내년 1월에 남원지역 고교생 10여명을 선발해 미국 산호세주립대학교 참관수업 및 실리컨밸리 기업 탐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RISC미래수송기사업단은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의 하나로 설립됐으며, 미래 수송기기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은 지역과 연계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1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제7회 임실 애향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과 심민 임실군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역발전 기여에 '큰 상'... 제7회 임실 애향상 시상식

### 본상 - 김진태 성진여객 대표 · 특별상 - 최낙헌 군 복지환경국장

임실애향본부(본부장 박길수)가 1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제7회 임실 애향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애향상은 헌신과 봉사로 임실군을 빛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유)성진여객 김진태 대표와 임실군청 최낙헌 복지환경국장이 각각 본상과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태 대표는 고향인 임실군 신령면에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과 전동차를 매년 1억원씩 5

년간 기부하여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최낙헌 국장은 1991년부터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실군의 장기비전과 핵심사업 추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세계명품테마랜드 등 국가에 산화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박길수 본부장은 "애향인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 고향을 아름답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의 땅,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임실애향본부 가족분들께서는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굳은 신념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 등 모든 것을 우리 군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가 임실군에 특별 방문해 격려사와 함께 시상식 자리를 빛내주었다.

남원=진홍영 기자

## '장관 표창 2관왕' 영예... 임실군 맞춤형 복지사업 '믿음직'

### 기초생활보장사업 · 맞춤형 급여안내 분야 공로 인정 생계비 ·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 복지멤버십 등 제공

임실군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장관 표창 2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믿음직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분야에 기여한 공로까지 인정받아 장관 표창 2관왕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일선 보장기관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식을 고취하고자 226개 지자체 중 기초생활보장사업 실적 우수 1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 가운데 임실군은 2023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상했다.

군은 군민의 약 11%인 1,710가구를 기초수급자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군청과 읍면은 물론 협의체,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한 결과이다.

맞춤형급여안내 분야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복지로 앱으로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군은 인구의 절반인 1만2,048명이 가입, 3,146가구/5,470건의 서비스를 받는 등 사업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가 선정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3곳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맞춤형 복지사업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와 어르신 생활복지 정책 등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은 6기부터 8기까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진홍영 기자



지난 16일 남원시 하반기 시민소통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원시, 하반기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개최

### 지역 발전 위한 활동 내용 공유

남원시는 지난 16일, 시민 중심의 소통·공감을 위한 하반기 시민소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제기된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며 남원시 발전을 위해 힘써온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았다. 또한, 4분기 회의 때 함께 논의한 제

2중양경찰학교 남원시 유치를 위한 시민 참여방안, 광한투원 및 공설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수렴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는 2년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시 현안에 대해 시민과 소통했으며, 각종 시정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해외 전지훈련 유치 '호평'

### 순창군, 올해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서 '우수상' 스포츠산업 지속 성장 발판 마련 · 스포츠 허브 위치 확립

글로벌 스포츠산업의 메카, 순창군이 해외 전지훈련 유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순창군은 서울 비빙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4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방 외교와 관련된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의교담당관)와 대전광역시(국제담당관)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경쟁에 나섰다.



순창군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해 7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선정되었고,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영예롭게 안게 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16년 전북도에서 우수상, 2019년 전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래로 도내 최고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심사에서 군은 '순창형 스포츠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3년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 국가대표팀 총 1,793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남원=이양원 기자

## 제일건설 부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남원시 "현재 피해업체 없어" ... 피해 지원 협의체 운영

남원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주)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의 부도 사태와 관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일건설에서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관내 업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부도 사태와 관련된 피해 업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내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오투그라운드 주택건설 사업은 이미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어 세대별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분양공통주택의 하자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사업 주체에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 주체의 부도 등 여건

상 보수가 어려운 경우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9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 복지사(063-250-64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부도 사태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해 피해조사 및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영자금과 법률 자문, 중앙부처 협의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순영 기획실장은 "현재까지 관내 업체나 주택 소유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이 가능한 피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 곳곳 장학금 기탁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금 기탁의 뜻깊은 마음이 끊이지 않고 혼훈함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대표 임근홍) 300만원, 임실군4·H연합회(회장 오정근) 200만원, 미라클영농조합법인(대표 최용하) 200만원, 임실낙우회(회장 김진관)가 400만원을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심민 군수는 "2024년 갑진년 한 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임실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진홍영 기자



### 내일 순창군 송년음악회

순창군이 한 해의 마무리를 화려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장식할 준비를 완료했다. 오는 19일 저녁 6시 30분, 순창군 송년음악회에서 열리는 2024년 송년음악회는 군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군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는 부드러운 진행과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유명한 유종화씨가 맡아 분위기를 이끌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가수 고은빛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어, 본 공연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섬세한 목소리로 무대를 울리는 이정옥, 활기찬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 그룹 오로라,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할 김스트밴드, 독창적인 매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 나이에, 감미로운 음색으로 사랑받는 가수 최성수가 순차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행사는 관람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 400명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남원=이양원 기자